

추석 명절 가정예배 모범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인도해도 됩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370장) 다 같 이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기 도 가 족 중

-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
- 올해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
-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가족들이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간구

성경봉독 시편 128:1-4 인 도 자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 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 인 도 자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추석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계절입니다. 밭에서 곡식과 과일이 익어 풍성한 수확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가정에 주시는 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의 근원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얻는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도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수고와 땀이 있지만, 그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석의 곡식과 과일이 농부의 수고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세대의 복이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복을 대대로 이어가십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지고, 자녀의 신앙이 또 다음 세대에 이어질 때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이 단순한 가족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는 고백을 온 세대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수고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가정임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찬 송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기세(405장) 다 같이

1. 주의 친절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 갈 때에 기쁨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